

‘학개 개요’

1. 저자 및 기록 연대

■ 본서의 저자는 선지자 ‘학개’

- 성경 스스로 1 장 1 절에서 여호와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였다고 증거!
- ‘학개’란 이름은 ‘나의 절기’란 뜻!
 - 몇몇 성경 학자들은 아마도 그가 이스라엘의 절기들 중 한 날에 태어났거나 혹은 그의 부모가 오랜 포로 생활에서 빨리 귀환할 날을 소망하면서 지은 이름이 아닐까 해석.
 - 특별히 선지자 ‘학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중 바벨론에서 태어남!
 - 그 후 바벨론 왕(바사의 초대 왕) 고레스(B.C. 539-529)가 유대인 중 일부를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인솔하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킬 때(1 차 귀환) 예루살렘으로 오게 됨!
 - 그 후 16 년이 지난 어느 날, 곧 ‘다리오 왕 2 년 6 월 1 일’(학 1:1),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주어짐!!
- 가장 짧은 사역 기간! => 총 ____개월
 - 다리오 왕 2 년 6 월부터 9 월까지 사역! But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성공적으로 사역함!!
- 참고로 동시대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
 - 선지자 ‘스가랴’ =>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 받은 지 2 달 후에 사역을 시작!
 - ‘에스라’ 선지자는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독려했다고 증언! (에스라 5:1)

■ 본서의 기록 연대 및 시대적 배경

- 기록 연대
 - => ‘학개’의 사역은 ‘다리오’왕 2 년(B.C. 520) 4 개월간 집중됨! 곧 B.C 520/521 년 기록!
- 특별히 이 시기는?
 - ①.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B.C 538 년), 약 16 년이 지난 후!
 - ②. ‘학개’ 선지자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2 차로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성전공사를 재개할 것을 촉구함!
- 참고로 고레스 왕이 죽자 사마리아 총독은 귀환한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여 페르시아를 배반하려 한다고 새로 왕이 된 ‘아닥사스다’를 충돌질 함!
 - => 그로 인해 성전 건축의 동력은 점점 사라져 14 년간 공사는 중단됨!
 - => 그러다 ‘아닥사스다’ 7 년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유다 포로들의 2 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아닥사스다’ 왕의 뒤를 이은 ‘다리오’ 왕 2 세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며 성전 공사가 재개되어 6 년만에 완공됨!!
 - => 이 후 ‘아닥사스다’ 왕 2 세가 왕이 되었을 때 ‘느헤미야’가 새로운 유다 총독으로 오면서 3 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게 됨!

2. 본서의 중심 주제와 구성, 핵심구절

■ 중심 주제 => '성전 재건!'

- '학개'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나태함에서 벗어나 여호와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메시지를 전파함! => 곧 성전 건축이 모든 메시지의 핵심!
 -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
 - 그리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된 번영과 은혜의 날을 체험하게 될 것!!

■ '학개'서의 구성 => 4 번의 예언으로 구성

- ①.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받은 예언/말씀 : 1 장 1 절-11 절
=> 성전을 폐허의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무관심을 책망!
- ②. 다리오 왕 2년 7월 21일에 받은 예언/말씀 : 2 장 1-9 절
=> 재건되는 성전과 솔로몬 성전을 비교하며 실망하는 자들의 마음을 바로 잡아줌!
- ③.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받은 예언/말씀 : 2 장 10-19 절
=> 겉으로만 수고하지 말고 진심으로 성전 재건에 힘쓸 것을 촉구/격려!
- ④.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두번째로 받은 예언/말씀 : 2 장 20-23 절
=> '스룹바벨'을 강하게 하시며 열국의 보좌를 뒤엎으실 것을 예언!

■ 핵심구절 : 2 장 9 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 학개 1 장, '성전 재건을 촉구하시는 하나님'

1. '학개'서의 서론 (1-2 절)

■ 1-2 절 주목

'다리오 왕 제이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뒤를 이어 B.C.522-485년 페르시아를 지배한 다리오 1세!
 -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게 함!
 -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심!

- 이런 ‘다리오’왕 2년 6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함!
- 참고로 여기 6월은 바벨론식 표기로 오늘날의 달력으로 따지만 8,9월이 됨.
- 그럼 이때 ‘학개’ 선지자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인가?
 - ①.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
 - a. 유다 총독 ‘스룹바벨’ = 유다 왕 ‘여호야긴’의 아들인 ‘스알디엘’의 아들
=> 곧 다윗의 자손 + 예수님의 족복에 등장!
 - b. 대제사장 ‘여호수아’ =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느부갓네살에 의해 살해된 대제사장 스라야의 손자로 그의 아버지 여호사닥은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간 마지막 대제사장이었음.

②. 그 내용은?

- ‘아직 성전 건축을 할 시기가 아니라는 백성들을 깨우쳐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
- 참고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성전 재건을 행하게 하신 이유는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 젖어든 바벨론식 인본주의 사고를 하나님 우선주의의 신본주의 사고로 전환하기 위함!
- 그런데 당시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은 포기한 채, 영적 무관심 속에 빠져 그저 자신들의 삶과 생활만 챙기기에 바빴다는 것! => 무려 16년 동안!!

2.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책망하시며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3-11 절)

1) 황폐하게 된 성전은 돌아보지 않고, 판벽한 집에서 평안한 삶만 살면 되는가? 책망! (3-4 절)

▪ 3-4 절

‘여호와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 ‘판벽한 집’이란 지붕과 벽을 완전하게 잘 붙인 화려한 집이란 의미!
- 곧 하나님의 전은 공사가 중단된 채로 황폐한 상태로 방치하면서 자신들의 집만 화려하게 꾸미며 살면 되겠는가? 책망하신 것!
=> 올바른 성도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가꾸며, 예배자의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 나아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란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적인 기쁨만 추구하지 말고 항상 말씀안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자 힘써야 할 것!

2)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자세히 돌아보며 행위들을 점검하라고 명령하심! (5-11 절)

▪ 5 절 주목!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 참고로 ‘만군의 여호와’ 라는 표현은 구약에 총 300 회가 사용되었는데, 학개서(2 장 38 절)에서 14 회가 사용됨!
=> 그런데!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란 표현은 대부분 하나님의 언약과 직결되는 칭호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때, 크신 권능으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음!
=>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은 이 ‘만군의 여호와’로 증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와 삶을 점검해 보라고 명령하신 것!

- 그럼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나요?
=>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는 **갈급한 삶의 연속이었음!**

- 6 절 주목!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삿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 8 절 주목!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

- 그럼 이런 갈급한 삶의 연속을 살게 되는 근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 우선 8 절 주목!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 이것은 1 차 귀환후 유다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 이것은 솔로몬 성전처럼 귀한 재료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도 저들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신실한 마음으로 얻기 쉬운 재료로 성전부터 건축할 것을 주문하신 것!
=>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값비싼 제물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순종임을 기억하자!

- 9 절 후반부-11 절 주목!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 곧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고, 그저 자신들의 삶만 챙기기에 바빴기 때문에 아무리 수고하여도 하나님께서 열매맺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

=> 과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 돌아보고 점검해 보자!

3. '학개'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의 반응 (12-15 절)

1)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함! (12-13 절)

▪ 12-13 절 주목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때에 여호와와 사자 학개가 여호와와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하심을 기억!
 - 참고로 유다 패망의 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의 말씀을 무시한 것!
 - 그런데 당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경외한 것!
- => 이때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언약을 재확인해 주심!!

2)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됨! (14-15 절)

▪ 14-15 절 주목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 때는 다리오 왕 제이년 여섯째 달 이십사일이었더라'

- 참고로 '감동시키다'의 히/원='야아르'로 '자극하여 일깨우다'는 의미가 있음!
 - => 곧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경외하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깨우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행하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
 - =>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도 바른 길로 자극하여 일깨워주시길 구하는 성도 되자!

❖ 오늘 내용을 묵상하면서 새로 결단한 것 무엇인가요?

❖ 중보기도 나눔